

의대 4학년 학생들 “단체행동 잠정 유보”

최승재 세종대 교수
‘신미국특허법’ 출간

국시거부 의대생 구제 논란

국시 응시자 대표 공동성명 발표
옳은 가치·바른 의료 재차 강조
복지부, 국시응시 기회 부여 미지수
재접수 등 추후 구제 국민여론 쉼



지난 10일 한 관계자가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인력국가시험원 본관 문을 닫고 있다. /뉴시스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대하던 의사들이 과업을 멈춘데 이어, 의대 본과 4학년들도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앞서 의대생 86%가 국가시험을 거부하며 응시 접수를 하지 않아 진퇴양난에 빠졌다. 정부가 추가 시험이나 접수 기한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한 데다 여론도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현재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이 내년 시험 시 올해 3학년과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병원 인턴 등 취업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40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국시 응시자 대표들은 13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국시거부에 나선 전국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이들은 “의료 전문가와 상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정책들이 결국 의료의 질적 하락을 야기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했다”라면서 “단체행동에 처음 나선 이유인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지키겠다는 마음에는 일

말의 변함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해당 법안을 재검토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 정책을 펼치는 지 선배 의사들과 지켜보겠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하는 순간 재차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시 거부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 문제를 두고 그간 단호함을 고수해 오던 정부가 아들에게 다시 국시 응시 기회를 줄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는 한 번 신청 기한을 연기한 만큼 더는 재연장이나 추가 접수는 없다고 선을 그어왔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국시의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다양한 업종을 아우르고 있어 이들을 구제해줄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해 국민 여론도 싸늘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는 내용의 국민 청원에는 13일 오전 12시 기준 동의자가 55만명을 육박했다.

의대생 내부는 술렁이는 모습이다. 본과 4학년들의 경우 올해가 아닌 내년 시험을 치를 경우, 현 본과 3학년 학생들과 함께 시험을 치를 수도 있어 이후 병원 인턴 취업 등의 경쟁 문제가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병원 교수 등 의료계 원로들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대학병원 교수 등 의료계 원로들이 참여한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와 사립대학교병원협회, 국립대학교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5개 단체는 의견문을 내고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모두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 의료계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대생 구제에 물꼬를 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세종대는 최승재 법학부 교수가 미국특허법을 소개하는 ‘신미국특허법’을 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신미국특허법’은 2020년까지 미국 특허법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에 대한 법리와 판례를 정리한 책이다. 특허법 분야의 실무가나 이론가가 최신 실무와 이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책은 전체 7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미국 특허법의 역사,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특허 실체법을 다루고 있다. 제5장부터 제7장까지는 소송과 소송 외의 ITC 절차와 심판(PTAB) 절차를 포함한 특허 절차법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최승재 세종대 교수, 김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현우 LG화학 변호사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이현진 기자

23일부터 수시모집 원서 접수

대교협, 공동원서 적극 활용 당부
하나의 원서로 여러 대학 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202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에 앞서 수험생들이 ‘공동원서접수 사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대교협은 올해 수시 원서 접수에서 공동원서와 공동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서비스를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 어플라이’나 ‘진학어플라이’가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4년제 일반대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대학별로 3일 이상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한다. 전문대는 오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1차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진행하고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2차 접수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동원서접수 사전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험생이 한 번 작성한 ‘공동원서’와 ‘공동자기소개서’를 여러 대학에 원서를 낼 때 활용할 수 있다.

공동원서접수 서비스는 수험생이 공동원서를 단 한 번 작성하면 지원한 대학 여러 곳에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추후 수정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서를 제출할 때마다 매번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부터 시작됐다.

현재 일반대학 188개교, 전문대 135개교, 기타 5개교 등 대부분 대학에 지원할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일부 대학은 공동원서접수 사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개별 접수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현진 기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산업연구원원이 11일 연구원 회의실에서 지역산업 협력을 통한 인력양성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문대교협

전문대교협-산업연구원 인력양성 활성화 공동 추진

지속 가능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산업연구원과 지역산업 협력을 통한 인력양성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해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직업교육 산학연 협력체계가 부족한 현실에서, 양 기관 협력을 통해 개별단위 협력이 아닌 지역 단위의 지속 가능한 산학연 협력체

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산업 인력양성 내실화 및 활성화 관련 정보 공유 ▲지역산업 기반의 (중소)기업-전문대학 우수 협력모델 개발 및 협력 ▲4차 산업혁명시대 지역특화산업 인력양성 활성화 협력 ▲지역경제 위기지역의 지역활력 증진사업 발굴 등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공동연구 및 사업 발굴을 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한양대, 운동기술 습득 뇌과학적 원리발견

김성신 심리뇌과학과 교수
미상핵, 기술습득·습관화 중요 역할



상과 관련된 올챙이모양의 미상핵(caudate nucleus)의 역할에 주목했다. 관찰 결과,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운동기술 습득 시 얻어지는 보상에 대한 정보가 미상핵의 머리 부분에서 꼬리 부분으로 이동되는 것이 발견됐다.

한양대는 김성신 심리뇌과학과 교수(사진)가 처음 접하는 운동기술을 습득하고 숙달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뇌과학적 원리를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심리뇌과학과는 한양대에 2021학년도 신설되는 학과로, 인간의 의사결정과 인공지능(AI)의 중첩분야를 연구해 새로운 기술개발에 초점을 둔 연구와 학문을 진행한다.

김 교수팀은 학습자에게 새로운 운동과제를 제시하고 기능성 핵자기공명영상장치(fMRI)를 통해 뇌의 변화를 관찰했다.

실험에서 김 교수팀은 뇌 영역 정보

이번 연구 결과는 쾌락·보상·동기부여를 담당하는 미상핵이 새로운 운동기술 습득하고 습관화되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최초로 밝혀내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현진 기자

한국국제대, 체육 특성화 대학 전환

대학명 가칭 ‘경남체육대’ 변경 추진

경영난으로 위기에 몰린 한국국제대학교가 대학명을 ‘경남체육대학교’로 변경하고 체육 특성화로 대학으로 변모해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국제대학교는 지난 11일 대학평의위원회를 거쳐 가칭 ‘경남체육대학교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교명을 ‘경남체육대학교’로 변경 추진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한국국제대학교 학교법인은 지난 8월 지방체육 육성과 진흥을 위



한국국제대 /뉴시스

해 체육진흥단을 발족시켰다.

체육대학은 기존 사회체육학과에 경기지도학과, 스포츠재활운동학과를 신설해 특성화된 체육전문대학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현진 기자

인하대 수시모집 전략 동영상 공개

인하대가 오는 23일 시작하는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2021학년도 수시모집 최종 지원전략’ 동영상 2편을 공개해 수험생들에게 인하대 입학전략을 제시한다.

13일 인하대에 따르면, 입학처 입학팀장과 책임입학사정관이 출연한 동영상 1편은 ‘2021학년도 인하대학교 수시모집 최종 지원전략-수시모집 주요사항 및 FAQ’(이하 ‘FAQ 동영상’)를 통해 원서접수 전 필수 체크사항,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핵심질문 FAQ, 신설된 첨단융합학부 안내 및 입시결과를 예측한다.

동영상 2편은 ‘2021학년도 인하대학교 수시모집 최종 지원전략-수시모집 입시결과’를 주제로 입시결과 주요 용어 이해하기, 인하대 전형별·학과별 입시결과 확인방법 및 입시결과 해석 등 핵심 지원전략을 공개한다. /이현진 기자

구직자 10명 중 7명 “스타트업 취업 관심”

최근 자유로운 기업 문화, 높은 성장 가능성 등의 이유로 스타트업 취업에 관심을 갖는 구직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실제 구직자 10명 중 7명은 스타트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신입 구직자 504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취업 의향’을 조사한 결과, 신입 구직자 중 70.6%가 스타트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신입 구직자들이 스타트업에 취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문화가 자유로울 것 같아서(49.4%)’였다. 이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39.0%)’란 답변이 2위에 올랐고, 3위는 워라밸/복지가 좋을 것 같아서(23.9%)였다(*복수응답). 잡코리아 관계자는 “신입 취업을 준비하는 2030밀레니얼 구직자들에게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근무분위기와 워라밸 보장 등 조건이 장점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